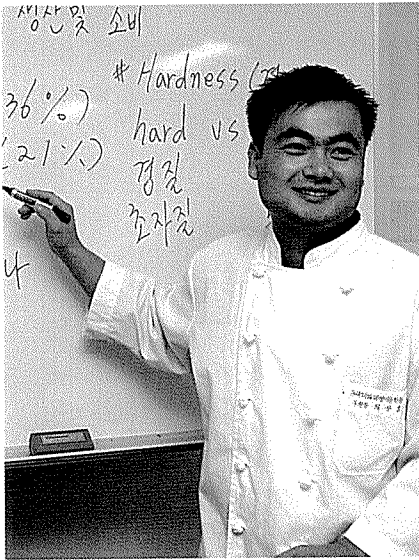


폭풍보다 無風이 두려운 삶

동서제과제빵기술교육원 부원장 최상호



“요트로 태평양을 횡단한 사람이 가장 두려웠던 것은 폭풍도 아닌 無風이었다고 합니다. 배를 난파시킬 수 있는 폭풍이 아니라 조금도 향해해 나갈 수 없었던 무풍의 순간이 가장 무서웠다는 말은 제 마음속 깊이 남아 있습니다.”

동서제과제빵기술교육원 최상호(33) 부원장에게 이 말이 의미있

는 것은 아마도 힘들었던 어린 시절이 있었기에 지금의 자신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닐까. 강원도 평창군에서 초년시절을 보낸 그는 가정 형편이 어려워 중학교 진학을 포기해야 했다. 서울로 올라와 숙식 제공하는 곳을 찾아 취업한 곳이 바로 제과점. 이때부터 그와 제과업과의 인연이 시작됐다.

밤늦게까지 계속되는 고된 일로 외출도 쉽지 않았던 그에게 교복 입고 학교 가는 도래 친구들은 부러움의 대상이었다. “많이 속상했어요. 힘들어서 제과점을 몇 번이고 그만두고 싶었지만 제과점을 떠나면 연고도 없는 서울에서 살아갈 수 없다는 두려움에 망설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여러 제과점을 거치며 경력을 쌓아가던 그에게 86년 4월 기회가 찾아왔다. 고려대 식품가공 실험실에서 실험 기사로 일하게 된 것이다. 이때부터 그는 배우지 못한 것에 대한 서러움, 공부에 대한 미련으로 검정고시를 준비하게 된다. 87년 중학교 과정을, 88년 고등학교 과정을 패스한 후 그는 89년 서울 보건대 식품가공학과에 입학했다.

학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 일과 학업을 병행해야 했지만 그는 어느 것 하나 게을리 하지 않고 최선을 다했다. 그의 배움에 대한 열정은 93년 방송통신대 경영학과 편입으로 이어진다. 강사로 일하게 된 것도 이즈음 국제제과학원에 취업하면서이다.

“중간에 현장 기술인으로 돌아간 적도 있었지만 가르치는 일에 대한 매력을 잊지 못해서 다시 교편을 잡았습니다.” 그는 이후 여러 학원을 거쳐 지금의 동서제과제빵기술교육원으로 거처를 옮겼다.

제과 강사에서부터 영업사원, 법정신문 기자, 각종 아르바이트까지 안

해본 일이 없다는 최상호씨. 고생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경험들이 그에게는 값진 재산이라고 한다. “평탄한 삶을 걷는 것보다 고난과 역경을 겪어 본 사람만이 인생의 참 맛을 알고 더 많이 발전할 수 있다고 믿어요. 저는 어차피 겪어야 할 어려움이라면 그것을 즐기려고 마음먹습니다.”

지금도 동국대에서 석사과정을 공부하고 있는 그는 훗날 제과점도 운영 하면서 대학 강단에서 후진을 양성하는 게 꿈이다. 인생을 가치있게 사는 법을 아는 작은 거인 최상호씨. 남다른 길을 개척하는 Only One이 되기 위한 그의 노력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 <글 / 강인옥 inok@mbakery.co.kr>

인생을 바꾼 후회 없는 선택

동경제과학교 양과자반 김현숙



“베이커리에 대해 공부할수록 과학적이고 수준 높은 분야라고 생각해요. 또한 제과기술인이라는 직업도 다른 사람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주기 때문에 자부심을 갖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일본 동경제과학교 양과자반 2학년에 재학 중인 김현숙(32)씨는 자신이 선택한 길에 대해 대단한 긍지

를 갖고 임하고 있다. 그녀가 제과인의 길에 들어선 것은 오래되지 않았지만 그 열정만은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정도로 하루하루 성실한 삶을 살고 있는 중이다.

김현숙씨는 경남 사천이 고향으로 진주여자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서울에서 대학 생활을 하게 됐다. 원래 교육열이 높았던 아버지는 넓은 곳 가서 배워야 한다는 생각이 강해 형제들 모두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었다. 성균관대학교 사학과에 재학 중이던 그녀는 법에 대한 흥미를 느껴 졸업 후 동교 법학과에 편입해 학업을 계속했다.

“대학을 졸업하기 전 대학원 진학과 직장생활이라는 선택의 기로에서 고민하던 중 1년 정도는 사회경험을 하기 위해 94년 한진건설에 입사했습니다. 처음에는 법무팀에서 일하기를 원했지만 비서실에 배치돼 업무를 시작했어요. 비서실의 업무는 재미도 있고 근무 조건도 좋았지만 시간이 지

날수록 자기발전의 한계가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첫 직장에서 3개월 가량 근무하던 김현숙씨는 좀더 나은 발전을 위해 현대그룹으로 자리를 옮기게 된다. 신입사원 연수 후 중장비 개발팀에서 수출업무를 담당하게 된 그녀는 이곳에서 3년 동안 근무하며 처음의 생 각과는 달리 샐러리맨으로서 평범한 나날을 보내게 됐다.

“직장생활의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제 나름대로 운동과 요리 등 취미 생활을 많이 했습니다. 어느날 제과점에 들렀는데 못보던 예쁜 케이크가 있어 이 일을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스쳤지요. 우연히 일본서적을 보 게 됐는데 데커레이션이 뛰어난 케이크를 보고 제과에 대한 관심이 높아 져 그 뒤로 제과학원에 다녔습니다.”

김현숙씨는 97년 9월 본격적인 제과공부를 하기 위해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회사를 시작했다. 이후 일본에 건너간 그녀는 98년 3월에 교통 사고를 당해 목뼈가 금가고 얼굴을 다쳐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어려운 위기를 맞았다. 두 달 동안 목도 제대로 움직일 수 없을 만큼 다쳤지만 자신의 목표를 위해 포기하지 않고 끈기있게 생활해 현재는 미래의 최고 기술인을 꿈꾸고 있다.

“일본에 와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해 힘들었지만 자기발전을 위해 참고 견뎌냈습니다. 한가지 제품을 제대로 알기 위해 일본의 소문난 제과점은 모두 돌아다니며 맛을 외웁니다. 케이크는 과일보다 더 맛있게 먹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만족할 때까지 맛을 보며 성분을 분석합니다. 한국에 돌아가면 일본의 좋은 책을 번역해 국내 베이커리 발전에 도움이 되고 싶어요.”

자기 분야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는 결코 다른 사람이 만들어 줄 수 없다.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가 되기 위해 역경을 극복하고 노력을 하고 있는 김현숙씨의 열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자세라고 느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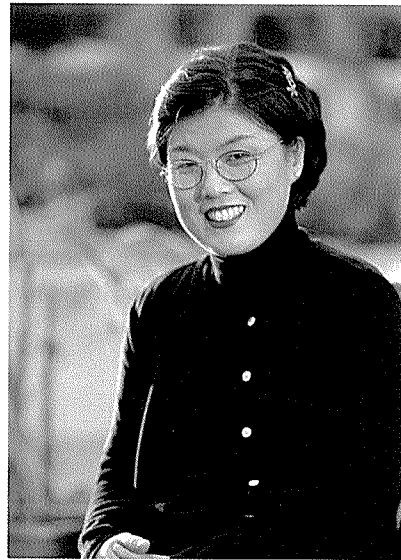
〈정한상 jeong@mbakery.co.kr〉

“중년의 원숙함으로 빵을 만들죠”

강남 김상업제과학원 데커레이션반 서봉애

“제 나이가 늦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제 꿈은 이제부터랍니다.”

27살에 결혼, 현재 대학 2학년 아들과 고등학교 2학년인 딸을 두고 있는 서봉애씨는 올해 마흔 여섯 살을 막 넘어나는 중년이다. 나이에 비해 훨씬 젊어 보이는 탓일까. 그녀의 웃음소리는 마치 갓 스무 살을 맞은 젊은이의 그것처럼 활기차고 밝았다. 현재 김상업제과학원 강남분원에서 데커레이션 과정을 이수중인 그녀는 환한 표정으로 늘 수업 분위기를 밝게 만든다.



수도여자사범대학 (현 세종대학교) 일본 어과 75학번인 그녀는 졸업과 동시에 결혼, 사회생활의 경험은 거의 없다. 결혼 후 계속 시부모를 모시다 배우고 싶은 열정에 최근에 야 비로소 제과제빵학원을 찾은 그녀는 늦게 시작한 만큼 그 열정은 누구보다도 뜨겁다.

“올 8월에 제과자격증을 획득했습니다.

남편과 아이들이 가장 든든한 후원자가 돼주고 있죠. 원래 제가 요리에 관심이 많았는데 이렇게 늦게나마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울 수 있어 요즘은 너무 행복합니다.”

95년에 한식요리사 자격증을 이미 획득한 바 있는 그녀에게 제과제빵 기술은 색다른 분야이면서도 흥미진진하기만 하다. 학원에 들어서는 순간 젊은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다 보면 어느새 활력이 넘쳐나는 것을 느낀다고 한다. 케이크 시트를 만들 때가 가장 신기하고 재미있다는 그녀는 내친김에 제빵자격증에도 도전하는 중이라고.

“제빵자격증 시험을 봤는데 조만간 발표가 날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원가를 한다는 것이 이렇게 진지하고 소중한 건지 새삼 느낍니다. 요즘에는 대학 졸업 후 사회활동을 많이 하지 못한 게 약간의 후회가 될 정도예요.”

시간이 날 때마다 일본과 관련된 잡지를 많이 본다. 단지 일본어를 전공했다는 이유만은 아니라고 한다. 내년 둘째 딸이 대학에 입학하면 일본 유학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과제빵 문화가 발달한 일본에서 홈베이킹을 배우고 돌아오는 것이 그녀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말하는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

“홈베이킹 문화가 앞으로 국내에도 활성화 될 것으로 봅니다. 몇몇 분들이 일본에서 이미 공부하고 들어와 활동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고요. 제 나이가 늦었다고는 결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이들과 남편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어 든든한 것도 제가 유학 결심하는데 큰 힘이 됐습니다.”

지금보다 나이가 더 들어도 사회에서 분명히 한 몫을 하고 싶다는 그녀. 40대 후반의 원숙함과 누구보다도 젊은 열정이 어울려 어떤 화려한 꽃을 피우게 될지 자못 궁금함이 더해 간다.

〈글 / 오형석 ohs@mbakery.co.kr〉